

광주 상무지구에 테크노밸리 조성한다

국토부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2의 판교' 실현 관심
광주 등 5개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화... 지방시대 이끌 성장잠재력 기대

정부와 광주시가 상무지구 일대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방 자치단체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려로 위임하는 등 개발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의 도전과 유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지원 방안, 체계적인 특구 관리 및 운영 방안, 국제·지방세·부담금 등 감면 방안, 특구진흥재단·기업종합지원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정부 부처 간 협력 방안 등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선상의 벨트와 광주보훈회관 인근 농지 등 상무지구 일대 85만㎡를 비롯한 대전·대구·울산·부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했으며, 도심에 기업과 인제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주거·문화·도시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 내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가정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시는 또 배후시설로 광주형 평생주택, 에너지파

크, 광주대표도서관 등 공공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평생주택과 대표 도서관 신축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상무지구 일원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 기업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창업 3년 이상의 스케일업(Scale-up) 임대 공간 300개 이상, 중견기업 분양 공간 50개 이상을 조성하는 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특구 내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1단계로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임대 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2단계로 중견기업 분양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별 입지계획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여기에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 분석, 기업 인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 개척, 고용, 특허, 금융, 법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 지원 등도 제공한다.

도심융합특구 특구개발의 성패를 가를 개발용지 확보도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구 내 개발 가능 용지 중 대부분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유지(29만㎡)와 농지인 사유지(29만㎡)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유지인 농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사전 지정도 완료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처럼 도심 외곽이 아닌 중심부 내에 융합 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젊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잠재력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광주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 승촌보에서 바라 본 영상강의 맑은 물과 푸른 무등산, 깨끗한 하늘빛이 파란색으로 맞닿아 한쪽의 수채화를 연상케한다. 15일 오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 좋음 ' 수준을 보이자, 나주시 노안면 승촌보 다리 너머로 직선거리 20km 떨어진 무등산의 웅장한 자태가 선명하게 보인다.

/나주=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산·강·하늘이 온통 '靑'

주담대 변동금리 내린다 신규취급액 기준 3.84%

지난해 12월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에 정기예금과 금융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6 달 만에 낮아졌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4.00%)보다 0.16%포인트(p) 내린 3.84%로 집계됐다. 앞서 4월(3.44%) 기준금리(3.50%) 아래로 추락한 코픽스는 5월(3.56%) 반등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다 7월(-0.01%p)과 8월(-0.03%p) 잇따라 하락했다. 이후 9월(0.16%p) 상승세로 반전한 뒤 11월까지 3개월 연속 올랐지만, 12월 상승세가 꺾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4.24~5.64%에서 4.08~5.48%로 낮아진다.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금리도 4.51~5.91%에서 4.35~5.75%로 코픽스하락 폭(0.16%p)만큼 떨어진다.

/연합뉴스

'신용사면' 250만 명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진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약약'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은 이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진도 아내 저수지 살해사건 19년 만에 재심 ▶6면

굿모닝 예방 - 작가 AI·챗 GPT 시대 ▶18·19면

KIA, 내아수 서건창 1억2000만원에 영입 ▶22면

2024 해양수산 R&D 투자방향 설명회



광주
1월 18일 (목) 13:30-15:30
김대중 컨벤션센터 회의실(301호-303호)

대전
1월 19일 (금) 13:30-15:30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관 대극장

부산
1월 22일 (월) 14:30-16: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행정동 대강당(1층)

참석대상
해양수산 R&D에 관심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주요내용
- 2024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설명
- 2024년 해양수산 신규 연구개발사업 사업설명
- 2024년 신규사업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문의처
T. 02-3460-4082 E. hjeum@kimst.re.kr

※ 전 지역 주차요금 지원이 되지않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전등록 QR